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본격 추진

전북도 - 전북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전북개발공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과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12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역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위·수탁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 체결이후 전북도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수탁

기관인 전북개발공사에서는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상반기 센터 설립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전북개발공사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맡게 되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을 사회, 경제, 문화, 물리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인 전면철거의 불도저식 사업이 아닌 거주자 중심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재생사업이므로 지역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시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가가 부족하여 사업 준비와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센터가 설립되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등 시·군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지역 내 마을활동가와 전문가 양성,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등 전라북도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물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임직원 대상 화재예방 관리 교육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1일 지역본부에서 통합 청사 내 범농협 임직원 대상, '관심(關心)이 안심(安心)입니다'라는 주제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안전 화재예방 관리 임직원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화재예방 관리 교육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최근 발생한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농협의 역할과 철저한 예방으로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사 내 지진 등 재난과 화재 발생 가장 교육을 통해 자위소방대 조직정비와 직원 개개인의 임무고지 숙지 등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상황에 적합한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이번 교육·훈련의 최종 목적은 안전이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환경보전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모두 함께해요"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 동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12일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란 1회용 쓰레기를 줄이고자 세계자연기금(WWF)과 주식회사 제주패스가 시작한 환경운동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진을 찍고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동참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1건당 1,000원씩 참여기금이 적립, 적립기금은 세계자연기금으로 제주도 환경보전 활동 등에 쓰인다.

전북중기청은 지난해부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행사 진행 시 1회용 종이컵 및 페트병을 제공을 금지하고 직원들에게도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이 지난 12일 전북시제품제작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전현규 전북지방조달청장과 김지혜 한국어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장을 지목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 이수지(063-210-641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자산운용사들, ESG 펀드 잇따라 출시키로... '사회적 책임' 관심 높아져

국민연금기 상장사들을 향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ESG 관련 펀드 출시를 검토·계획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배당정책 개선 노력이 없던 남양유업에 대해 주주제안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사회적 책임투자가 각광을 받

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속속 관련 펀드를 내놓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SG 관련 펀드를 연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자산운용은 두 달 이내에 미국 상장사에 투자하는 ESG 펀드를 출시한다. 한투자산운용은 미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s)와 협력해 성 다양성(Gender Diversity)에 충실한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할 계획이다.

한투자산운용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하는 ESG 펀드도 준비하고 있다. 회

사 관계자는 "앞서 SSGA와 출시 계획인 ESG 펀드는 성 다양성으로 좁혀져 있어 보다 폭넓게 투자하는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ESG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반기 내 출시 목표로 하고 있다. ESG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형 ETF로 한국거래소와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삼성 KODEXMSCIESG유니버설증권ETF(주식형)'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1년 수익률 -6.95%, 6개월 -3.06%로

다소 부진했으나 연초 이후 7.63% 수익률을 거두는 등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KB자산운용은 기존 ESG성장리더스 펀드가 국내 펀드인 만큼 해외 ESG 펀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KBESG성장리더스(주식)A' 펀드는 연초 이후 6.39% 수익을 거두고 있는 중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회사 내에서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며 "사모펀드만이 아니라 조만간 공모도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균형과 조화 통한 노력으로'

남원축협, 축산부문업적평가 전국 1위 수상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이 2018년도 조합 사업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노력으로, 상호금융 대상평가 장려상, 쇠고기 이력제 평가 전국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축협 130개소(지역축협 116·품목축협 23)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원축협은 2018년 축산부문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쇠고기 이력제 평가 1위, 상호금융사업 대상평가에서 축협으로는 유일하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의 균형을 이루는 축협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2018년 종합 업적평가에서 도시형 축협 중 광주, 대구, 울산 축협과 같은 대형 축협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최종 현지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초·중고 졸업, 입학에 맞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나눔 축산을 이어가고 있고, 농협 최고의 상인 총화상을 2회(2009·2017년) 수상하는 등 조합원과 임직원의 화합과 소통이 최고로 평가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근 남원축협은 17년 연속 흑자경영을 통한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축산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신사업으로 채혈 임신진단 사업, 한우암소 배내기 사업 등 축산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강병무 조합장은 "남원축협의 캐기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사랑하고 이용하는 결과이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은 더욱 조합원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원예농협, 300만불 수출탑 달성 '쾌거'

전주원예농협(조합장 김우철)이 수출탑 300만불 달성과 2018년 상호금융 마케팅 품질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전북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 수출우수농협 수출탑 수여식에서 김우철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번 수출탑 명단에는 전국 1,100여개 농협 가운데 97만 개 이름을 올렸다.

수출탑은 한 해 100만달러 단위로 농식품 수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수여된다.

전주원예농협은 2017년 7월에 산지유통센터를 개설한 이래 2017년 80만달러 수출, 2018년 303만 달러 수출을 기록해 수출탑을 수상하게 됐다.

산지유통센터 개설 후 1년여 만에 거둔 성과로 주 수출 품목은 배, 양파 등으로 베트남, 대만, 태국 등에 수출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2018년 상호금융 마케팅 품질 대상 연도말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다.



상호금융 마케팅 품질 대상은 고객 마케팅 및 고객만족도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수상의 영광을 안은 전주원예농협은 경쟁력 있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는 농협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우철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은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년여 만에 수출탑을 달성하게 됐다"며, "수출 증대를 통해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와 관로확장에 도움이 되는 전주원예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